

글쓰기

정확한 문장 표현
인문 pp. 110~117, 이공 pp. 114~121

전시 학습 확인

- 비판적 읽기의 핵심
 - 선입관 없이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확인, 또 확인하는 것

- 요약하기의 핵심
 - 단락을 중심으로 요약하는 습관을 갖기
 - 단락의 핵심 내용을 찾아 요약하기
 - 글의 대강(大綱)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하기

학습 목표



정확한 문장 사용의 중요성을 이해한다.



한국어다운 표현을 사용할 줄 안다.



문장의 어색한 부분을 찾아 고칠 줄 안다.

- 정확한 문장을 쓰는 방법을 익히기 위해서는 한두 시간의 수업으로 불가능합니다.
- 이 수업의 핵심은 우리가 문장을 잘 쓸 때 정확히 쓰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장의 개념

- 문장은 하나의 정보만을 담는다.
- 문장에 여러 개의 정보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핵심 정보가 그 문장을 통해 전달하려는 정보다. 그리고 **핵심 정보**를 중심으로 문장을 이해해야 한다. (나머지 정보는 **꾸며주는 정보**)

영수는 엄마에게 혼나서 집을 나갔다.

자가격리로 집에만 있던 영수는 게임만 하며 하루를 보냈다.

교수님께서 과제를 내주셨지만 영수는 졸다가 듣지 못했다.

문장의 형식

주어 + 목적어 + 서술어

⇒ 영수가 밥을 먹는다.

주어 + 필수 부사어 + 서술어

⇒ 영수가 학교에 간다.

주어 + 서술어

⇒ 영수가 괴롭다.

주어 + 서술어

⇒ 영수는 학생이다.

타동사

단문

자동사

주어 서술어가
하나인 문장

형용사

서술격조사

• 복문 : 접속문 - 단문과 단문이 연결된 형태

내포문 - 단문 안에 단문이 들어간 형태

철수는 (영희가 돌아오기)를 기다린다.

철수는 **목적어**를 기다린다.

철수는 (눈이 예쁜) 영희를 좋아한다

영희가 돌아온다.

철수가 (어깨를 들썩이며) 눈물을 흘린다.

철수가 눈물을 **부사어** 흘린다.

영희는 (눈이 예쁘다).

철수가 어깨를 들썩인다.

철수는 (영희가 아프다고) 말했다.

영희는 **서술어**

눈이 예쁘다.

철수는 **인용문** 다고 말했다.

영희가 아프다.

정확한 문장

- 개념 : 어법에 맞게 전달하려는 바를 가장 잘 표현한 문장

생선의 신선도는 눈보다 아가미를 보고 고르는 것이 요령이다.



위 문장에서 전달하려는 바는 무엇일까?

- ① 신선한 생선을 고르는 방법
- ② 생선이 신선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

생선을 고를 때는 눈보다 아가미를 보아야 한다.

생선의 신선도는 눈보다 아가미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

→ 신선한 생선을 고르려면 눈보다 아가미를 보는 것이 요령이다.

한국어다운 표현

- 문장은 능동문으로 작성하는 것이 한국어다운 표현이다.

컴퓨터를 구입하시면 저희 회사가 **교육시켜** 드립니다.

→ 컴퓨터를 구입하시면 저희 회사가 **교육해** 드립니다.

저는 저에게 **맡겨진** 일을 반드시 완수하는 사람입니다.

→ 저는 제가 **맡은** 일을 반드시 완수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저에게 **맡긴** 일을 반드시 완수하는 사람입니다.*

사동사 : 주체가 제3의 대상에게 동작이나 행동을 하게 함을 나타내는 동사

~시키다 / -이, -히, -리, -기, -우, -구, -추

피동사 : 남의 행동으로 인해 행하여지는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

~아/어지다 / -이, -히, -리, -기 / ~되다

- 번역투 문장은 사용하지 않는다.

그의 노력은 아무리 칭찬해도 **지나치지 않다**.

→ 그의 노력은 칭찬 받아야 한다.

일본어 영향

이중부정 없음

창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본금이다.

→ 창업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본금이다.

일본어 영향

～において

발상의 전환이 강하게 **요구된다**.

→ 발상의 전환이 매우 필요하다.

영어 영향

be needed

대기전력을 최소화**시킨** 것으로 매우 획기적인 제품이다.

→ 대기전력을 최소화한 것으로 매우 획기적인 제품이다.

영어 영향

Let, make

문장 성분의 호응

(인문 pp.111~114, 이공 pp.115~118)

•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

나는 이번 학기에 장학금을 타는 것이 목표이다.

주어

주어

서술어

→ 나는 이번 학기에 장학금을 타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이번 학기에 장학금을 타는 것이 내 목표이다.

이 계획은 지나치게 근시안적이라는 사실이다.

[이 계획은 지나치게 근시안적이다]라는 사실이다.

안긴 문장

서술어

‘라는’은 ‘라고 하는’이
줄어든 말로

‘이다/아니다’의 어미에 붙음

→ 문제는 이 계획이 지나치게 근시안적이라는 사실이다.

이 계획이 지나치게 근시안적인 것은 사실이다.

이 계획은 지나치게 근시안적이다.

• 목적어와 서술어의 호응

정부는 민심을 잘 헤아려 세심하게 보살피려고 노력해야 한다.
주어 부사어 목적어

정부는 민심을 헤아리려고 노력해야 한다. (○)

정부는 민심을 보살피려고 노력해야 한다. (X)

→ 정부는 민심을 잘 헤아려 국민을 세심하게 보살피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번 일로 우리는 불편과 피해를 입었다.

이번 일로 우리는 불편을 입었다. (X)

이번 일로 우리는 피해를 입었다. (○)

→ 이번 일로 우리는 불편을 겪고 피해를 입었다.

사람들은 [뱀이 징그러우면서도] 보기만 하면 잡으려 한다.

주어

주어

서술어 (형용사)

서술어(타동사)

서술어(타동사)

사람들은 뱀이 징그러우면서도 잡으려 한다. (X)

사람들은 뱀을 보기만 하면 잡으려 한다. (O)

→ 사람들은 뱀이 징그러우면서도 뱀을 보기만 하면 잡으려 한다.

→ 사람들은 뱀을 징그러워하면서도 보기만 하면 잡으려 한다.

• 정확한 어미와 조사의 사용

어디에 있던지 나를 기억해 줘.

- **던지** : “막연한 의문(회상)” 의미를 내포 - **든지** : “선택” 의미를 내포

→ 어디에 있**든지** 나를 기억해 줘.

하느라고 했는데 네가 보기에 어떨지 모르겠다.

- **느라고** : 앞에 등장하는 내용이 뒤에 등장하는 내용의 목적이나 원인이
됨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예) 웃음을 참느라고 딴 데를 보았다.

- **노라고** : 자기 나름대로 노력했음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 하**노라고** 했는데 네가 보기에 어떨지 모르겠다.

그 사람은 언제까지나 너를 잊지 못한데.

- **데** : 과거에 직접 경험한 일을 그대로 옮겨서 말할 때 사용하는 종결어미
- **대** : “**다고 해**”가 줄어든 말. 남이 한 말을 간접적으로 전달할 때 사용하는 종결어미

→ 그 사람은 언제까지나 너를 잊지 못한**대**(못한다고 해).

* 안 돼/ 안 되

안 + 되 + 어 + 다

부사 어간 ? 어말어미(종결)

* 어간 다음에는 어미가 반드시 와야 함

* ‘돼다’라는 단어는 없음

* ‘어’는 종결어미(명령, 의문, 청유)

‘안 돼/안 되’

구별법

‘해’를 넣어서 말이 되면 ‘돼’
안 **해**요/ 안 **하**요 - 안 **돼**요

‘하’를 넣어서 말이 되면 ‘되’
안 **해**나요/ 안 **하**나요 - 안 **되**나요

• 올바른 피동 · 사동 표현

그날의 안건은 불필요한 논쟁을 유발시켰다.

유발(誘發) : 어떤 것이 다른 일을 일어나게 함 ← 사동의 의미 지님

-시키다 : 사동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주체가 제3의 대상에게 행위를 하도록 만드는 것)

* 유발 + 시키다
 사동 사동

→ 그날의 안건은 불필요한 논쟁을 유발했다.

그녀의 표정은 오래오래 잊혀지지 않았다.

잊히다 : 잊다의 피동형

-어지다 : 피동의 뜻을 더하는 보조동사

* 잊히 + 어지다
 피동 피동

→ 그녀의 표정은 오래오래 잊히지 않았다.

그녀의 표정은 오래오래 잊어지지 않았다.

- 중복된 표현과 번역투 문장 피하기

우리는 이와 유사한 사건들을 미디어 매체에서 자주 접한다.

미디어[media] : 어떤 작용을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

매체 : 어떤 작용을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전달하는 물체, 또는 그런 수단.

→ 우리는 이와 유사한 사건들을 매체에서 자주 접한다.

그의 노력은 아무리 칭찬해도 지나치지 않다.

아무리 ~ 해도 지나치지 않다. いくら ~ても 過ぎる ことはない

→ 그의 노력은 칭찬 받아 마땅하다.

그의 노력을 칭찬해야 한다.

- 현시대에서는 클래식 음악을 어디에서든지 생각보다 쉽게 접할 수 있다. 음악회에 직접 찾아 가지 않아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드라마, 영화, 또는 텔레비전 광고를 통해 간접적으로 접할 수 있다.
 - ‘어디에서든지’를 사용하면 뒤에 공간이 등장해야 한다.
 - ‘음악회에 직접 찾아 가지 않아도’는 불필요한 표현이다. 클래식 음악을 음악회에 찾아 가서 듣는 사람보다 음반으로 즐기는 경우가 더 많다.
 - 뒷문장은 앞문장에 대한 이유이므로 서술어를 바꿔야 한다.

현시대에서는 클래식 음악을 생각보다 쉽게 접할 수 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드라마, 영화, 또는 텔레비전 광고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접하기 때문이다.

- 학생들의 흥미를 충족시키지 못한 학교 음악교육은 형식적이고 따분한 음악으로, 생활 속에서 자유롭게 즐기는 음악과 학교에서 배우는 음악의 이중성 속에 많은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 주어를 꾸며주는 말이 형식적이고 따분한 음악으로 인한 결과이다.
 - ‘형식적이고 따분한 음악’에서 ‘형식적인 음악’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 ‘주고 있습니다.’에 어울리는 대상이 없다.
 - ‘음악의 이중성’이 무슨 의미인지 명확하지 않다.

학교 음악교육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따분한 음악만을 대상으로 해서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자유롭게 즐기는 음악과 다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 2022년 교육부에 따르면 학생들의 소질, 적성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여 듣고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고교학점제’ 도입이 (22년)특성화고부터 시작하여 일반고까지 단계적으로 도입·추진할 것이라고 예고하였다.
 - ‘예고하였다’에 어울리는 목적어가 없다.
 - 괄호는 뒤에 사용한다.
 - 연도 사용에 유의한다.

2022년 교육부에 따르면 학생들의 소질, 적성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여 듣고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고교학점제’를 특성화고(2022년)부터 시작하여 일반고까지 단계적으로 도입, 추진할 것이라고 예고하였다.

- 교육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학생들의 자율적 사고와 행동’과 ‘타인·배려’가 부족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고 이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인성에 관한 교육 전문가의 인식이 부정적으로 나타남을 말하고 있습니다.
 - 문장이 길다.
 - ‘부족하다’에 어울리는 대상이 없다. ‘청소년들이’가 아니라 ‘청소년들에게’라고 수정해야 한다.
 - ‘타인·배려’가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다.
 - 교육 전문가의 인식이 부정적인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 수식어의 위치에 유의한다.

교육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들에게 ‘자율적 사고와 행동’과 ‘타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조사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교육 전문가들이 청소년의 인성에 대해 부정적임을 보여준다.

- 부모교육을 통하여 부모가 자녀에 대한 생각의 폭을 넓히는 것을 돋고 의사소통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에게도 자신의 이야기를 부모에게 자유롭게 표현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돋는 인식 개선 및 의사소통방법에 대한 교육 및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 문장이 너무 길다
 - ‘부모교육을 통하여’ 할 수 있는 것과 아닌 것을 구별해야 한다.
 - ‘A뿐만 아니라 B도’라고 했으므로 부모교육을 통해 부모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A와 B로 와야 한다.
 - ‘뿐만 아니라’ 뒤의 내용은 부모교육과 다른 프로그램이다.
 - ‘표현’과 ‘공유’는 의미가 다소 중복, 이것은 의사소통방법이지 ‘인식 개선’은 아니다.

부모교육을 통해 부모가 자녀에 대한 생각의 폭을 넓히는 것을 도울 뿐만 아니라 부모의 의사소통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청소년들에게도 자신의 이야기를 부모에게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의사소통 방법에 대한 교육 및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 청소년들의 충동적인 ‘죽고싶다’는 생각은 내면에 자신의 감정과 정서를 공감해 줄 사람과 공간이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평소 자살예방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충동적으로 자살생각이 들 때 즉각적으로 부정적 감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문장이 길다.
 - 언급한 해결방안으로 사람과 공간에 대한 내용으로 수정·정리한다.
 - 뒷부분을 중심으로 앞부분을 수정할 수도 있다.

청소년들의 충동적인 ‘죽고싶다’는 생각은 자신의 감정과 정서에 공감해 줄 사람과 공간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정서적 불안을 보이는 청소년에게는 주변의 관심이 필요하며, 충동적으로 자살생각이 들 때 거리낌없이 방문하여 마음의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쉼터를 마련해야 한다.



교재 연습문제

(인문 118~119쪽, 이공 113~114쪽)

1) 분명한 것은 문명의 이기는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해가 된다.



주어에 어울리는 서술어가 없음

분명한 것은 { [사람들이] 문명의 이기 를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해가 된다. }

주어

일반적인 사람 생략됨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없을

서술어

“분명한 것은 ~ □□이다” 형태가 되어야 함

정답 1 :

정답2 :

“~것은/ ~점은” 등이 주어로 오면 “~것이다/~점이다”가 서술어로 오는 경우가 많음

2) 직업 선택의 폭이 다양한 학과는 한국 학생들에게 선망의 대상이다.



꾸며주는 절의 주어에 어울리는 서술어가 없음

직업 선택의 폭이 다양한
주어 서술어

꾸며주는 절

학과는 한국 학생들에게 선망의 대상이다.
주어 서술어

☞ 폭이 다양하다. (X)

- * 폭 : 평면이나 넓은 물체의 가로로 건너지른 거리
- * 다양하다 : 모양, 빛깔, 형태, 양식 따위가 여러 가지로 많다.

정답 :

3) 야구 동아리에서는 야구에 관심이 있거나 좋아하는 학우를 모집합니다.



두 문장이 결합하면서 한 문장에 필수 요소인 목적어가 생략되었음

야구 동아리에서는
주어
야구 동아리에서는

야구에 관심이 있는
+
목적어 좋아하는

학우를
목적어
학우를
모집합니다.
서술어
모집합니다.

목적어 ‘학우를’을 꾸며주는 절/구

☞ ‘좋아하는’에 어울리는 목적어가 없음

정답 :

4) 이 연구를 통해 우리는 성적 소수자에 대한 생각의 변화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동격조사 ‘와’로 연결된 내용의 형태가 일치하지 않음

* 공동격조사로 연결된 내용은 형태, 성격 등이 어울릴 수 있어야 한다.

이 연구를 통해 우리는 성적 소수자에 대한

생각의 변화

와

관심이 높아지고

단어 형태

문장 형태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답1 :

정답2 :

5) 우리는 인간을 동물이라고 생각하는 일이 익숙하지 못하다.



조사가 정확히 사용되지 않았음

* 익숙하다 : 형용사 어떤 일을 여러 번 하여 서투르지 않은 상태에 있다.



익숙해진 주체와 익숙해진 일을 구별해야 한다.

‘익숙하다’는 ‘못하다’보다 ‘않다’와 어울린다.

(‘못하다’ – 능력이 없다/ ‘않다’ – 안 하다)

우리는 인간을 동물이라고 생각하는 일 ? 익숙하지 못하다.

주어

서술어

정답 :

6) 이 논문은 논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재검토가 요구되어진다.



피동의 의미가 두 번 결합되었음

* 피동을 만드는 법

① ~되다 : **피동접미사** 일부 **명사** 뒤에 붙음

예) 가결**되다**/ 형성**되다**

② ~어지다 : **보조동사** 일부 **동사나 형용사** 의 뜻 부분 뒤에 붙음

예) 만들어**지다**/ 밀어**지다**

③ -이/ 히/ 리/ 기 : **피동접미사** 일부 **동사**의 뜻 부분 뒤에 붙음

예) 꺾**이다**/ 잡**히다**/ 물**리다**/ 믿**기다**

☞ 요구되어지다 = 요구 + 되 + 어지다 (X)

명사 피동접미사 피동보조동사

정답 :

7) 그런 배려를 당연시 여기는 것은 뻔뻔한 일이다.



같은 의미가 단어가 중복 사용되었음

-시(視) : 몇몇 명사 뒤에 붙어 ‘그렇게 여김’ 또는 ‘그렇게 봄’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 그런 배려를 당연시 + 여기는 것은 뻔뻔한 일이다.

여기다 의미 중복

정답1 :

정답2 :

8) 나는 이번 방학을 게으름과 싸우면서 보낸 기간이다.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을 이루지 못함

나는 이번 방학을 게으름과 싸우면서 보낸 기간이다.

주어

서술어

주어를 중심으로

나는 이번 방학을 게으름과 싸우면서 _____.

서술어를 중심으로

_____ 게으름과 싸우면서 보낸 기간이다.

정답1 :

정답2 :

9) 네가 무슨 말을 하던지 나는 너를 믿을 것이다.



어미가 잘못 사용되었음

-던지 : 막연한 의문이 있는 채로 그것을 뒤 절의 사실이나 판단과 관련시키는 데 쓰는 연결 어미

예) 얼마나 출던지 손이 곱아 펴지지 않았다.

손이 곱아 펴지지 않았다고
판단한 이유

뒤 절의 사실

-든지 :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 일어나도 뒤 절의 내용이 성립하는 데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정답 :

10) 독서는 베스트셀러 목록이 아니라 내적 필요에 따라 선택해야 한다.



단어의 뜻을 정확히 모르고 사용하여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을 이루지 못함

독서 : 책을 읽음, ‘책 읽기’로 순화

☞ 책 읽기는 베스트셀러 목록이 아니라 내적 필요에 따라 선택해야 한다. (X)

주어

서술어

☞ 책은 베스트셀러 목록이 아니라 내적 필요에 따라 선택해야 한다. (X)

주어

서술어

* ‘선택하다’는 타동사이므로 목적어 필요, 선택하는 것은 바로 ‘책’

정답1 :

정답2 :

정답3 :

▣ 수시고사 20점 -

- 어법에 어긋난 문장(5개 x 각 4점)을 글에서 찾아 이유를 설명하고 수정하기
 - * 이 과제는 수업 내용(6주차 '정확한 문장')을 확인하고 실제 글에서 어법에 어긋난 문장을 찾고 고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어법에 어긋난 문장의 사진(캡처) 1점 : 출처를 밝혀야 함

설명 1.5점 : 어법에 어긋난 유형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설명을 제시해야 함

예)

이중 피동의 사용 : 위 문장의 '잊혀지지'는 이중 피동이어서 어법에 어긋난다. 동사 '잊다'의 피동형은 '잊히다'이다. '잊혀지지'는 '잊다'의 피동형인 '잊히다'에 피동의 뜻을 가진 보조동사 '-아(어)지다'가 붙은 형태이다. 그러므로 피동의 뜻이 두 번 사용되어 어법에 어긋난다.

고친 문장 1.5점 : 어법에 어긋난 부분을 수정한 완전한 문장을 제시해야 함

* 동일 유형은 1개만 인정, 맞춤법과 띄어쓰기는 제외



Q & A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 학생의 글

제가 20년을 살아오면서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머리속에 잊혀지지 않는 사건은 남에게 심한 욕이나 장난을 하여 멀어진 친구가 있었습니다.

서소의
서울

- 많은 학생들의 글처럼 문장이 길다. (계속 이어진 형태)
 - ◎ 20년을 살면서 많은 일 있었음
 - ◎ 그 중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있음
 - ◎ 그 사건은 친구에게 심한 욕이나 장난을 해서 멀어진 일임

20년을 살아오면서 저에게는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머리속에 가장 잊히지 않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은 친구에게 심한 욕과 장난을 하여 멀어진 일입니다.

▣ 학생의 글

저는 중·고등학교 때 학교랑 집이 가까워서 지각을 한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한 면도 있습니다.

- 앞 문장과 뒷 문장의 내용이 어울리지 않음
 - 접속사 ‘그래서’ 사용의 오류
 - 그래서 :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원인이나 근거, 조건 따위일 때 사용
 - 집과 학교가 가까워서 지각을 한 적이 없는 것이 부지런한 면의 근거가 될 수 없음

저는 중·고등학교 때 학교랑 집이 가까워서 지각을 한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제가 부지런한 줄 압니다.